

## 목차

- I. 서론
- II. 정의
  - 1. 동성애는 동성간(homo-) 섹스(sexuality)를, 즉 성행위를 의미한다.
  - 2. 동성애는 우정과 다르다
- III 역사적 고찰
- IV. 동성애의 원인과 치료
  - 1. 생물학적 원인론
  - 2. 정신적 원인과 전환치료
  - 3. 개인의 선택(choice) 이론
- V. 동성애 행동과 그 합병증
  - 1. 동성애 행동
  - 2. 신체적 합병증
- VI. 정신건강 문제
  - 1. 동성애 관련 정신건강문제
  - 2. 자폐증과 동성애
  - 3. 기타
- VII. 동성 결혼의 행동 윤리적 고찰
  - 1. 원칙의 문제
  - 2. 동성 결혼에서의 비윤리적 행동
- VIII. 동성 결혼에서의 자녀 양육문제
  - 1. 옹호하는 연구와 그 비판
  - 2. 반대하는 연구
  - 3. 비교 연구
- IX. 맺는 말

## 초록

동성애는 동성간 우정이 아니며, 사랑(愛)이라기 보다 동성간 성애행위이다. 동성애 자체에 의학적 문제, 즉 건강문제가 많다. 동성애자들이 행하는 성행위들이 당사자들에게는 비윤리적이 아닐지 모르나, 분명히 의학적으로 병적이다. 그 병들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퍼질 수 있어 비윤리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적 비용이 들게 만들 수 있다. 즉 자타에 해로움(harm)을 끼침으로 비윤리적이 된다.

동성 결혼의 경우 그 의학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동성 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에서 오랜 쌓인 지혜와 증거, 즉 자녀는 결혼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서 자라야 한다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한 인격발달과정을 저해한다.

동성애자들에게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문제, 자살위험, 충동장애, 그리고 약물남용 문제 등등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자녀 양육을 맡는다는 것은 자녀의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성 커플이 흔히 보이는 관계적 불안정성과 문란성, 신체적 합병증들과 정신의학적 병발증, 커플 간 폭력 등은 그것을 목격하는 자녀들의 인격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성 부모 아래 자란 아이가 남녀 두 역할을 모두 배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그리고 동성애 파트너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데, 이 역할들은 상호 충돌하기 마련이다. 동성 커플의 자녀가 동성 양친을 동일시(identification) 함으로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진정으로 "책임이 따르는" 결혼관계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신고율이나 civil union 신고율이 아직은 매우 저조하다.

결론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들을 낳고 길러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하는데 부모의 결혼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우리는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등 모든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실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동성간 성행위의 실행은, 비록 결혼이라는 형태를 띠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친다는 증거들이 많다. 동성혼은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동성애 행동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반대한다.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정상화 운동의 일환으로 동성혼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정상이며 (정신장애가 아니며), 타고 나며, 따라서 변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인권차원에서 차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동성간 결혼도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 사회문화적 이슈가 있다. 첫째는 동성애자와 관련된 인권과 차별 이슈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의학적 이슈이다. 의학적 이슈란, 예를 들면 유전이다 아니다, 정신장애이다 아니다, 정상적 라이프스타일이다 아니다, 또는 치료된다 아니다, 등등에 대한 논쟁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의학적 연구들을 보면,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주장이 임상적으로 입증된바 없고, 특히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유동성( fluidity)이 입증되어 있으며, (전환) 치료 된다는 증거들이 무수하다.

이 논문은 동성애 자체의 문제점과 동성혼의 문제점들 중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II. 정의

### 1. 동성애는 동성간(homo-) 섹스(sexuality)를, 즉 성행위를 의미한다.

동성애는 성적 지남(sexual orientation)<sup>1)</sup> 중 하나이다. 성적 지남은 성적 끌림이 누구에게로 향해 나타나는가, 그래서 누구와 성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성적 끌림이 향하는 대상 또는 성행위 대상이 이성, 또는 동성의 사람 또는 양쪽 모두인가 하는 것이다. 성행위의 대상이 이성일 때는, 이성애(heterosexuality)라 하고, 동성일 때는 동성애(homosexuality)라 하고, 양쪽 모두일 때는 양성애(bisexuality)라 한다. 따라서 동성애는 ①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homosexual attraction), ② 동성간 성행위(homosexual behavior), 그리고 ③ 동성애자 공동체 회원임(동성애자로거의 정체성) 등으로 정의된다.<sup>2)</sup>

최근, 성적 끌림에 감정적 끌림(emotional attraction) 또는 romantic attraction이라는 개념이 끼어들고 있다. 즉 미국심리학회도 동성애(Homosexuality)란 동성(same sex)간의 사람 또는 같은 젠더간의 사람들 사이의 romantic attraction, sexual attraction, 또는 sexual behavior라고

1) 성적 지향(sexual preference)이라고도 한다. 성적 선호는 사용되지 않는 번역어이다.

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xual orientation, homosexuality and bisexuality. Jan 2, 2010. <https://web.archive.org/web/20130808032050/http://www.apa.org/helpcenter/sexual-orientation.aspx>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PLICATION FOR LEAVE TO FILE BRIEF AMICI CURIAE IN SUPPORT OF PARTIES CHALLENGING THE MARRIAGE EXCLUSION. 2007. [http://www.courts.ca.gov/documents/Amer\\_Psychological\\_Assn\\_Amicus\\_Curiae\\_Brief.pdf](http://www.courts.ca.gov/documents/Amer_Psychological_Assn_Amicus_Curiae_Brief.pdf)

정의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정의의 확대는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를 안하더라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동성애자 집단(homosexual community)로 recruit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들은 언제인가 동성애 성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 2. 동성애는 우정과 다르다

동성애(愛), 즉 동성 간 사랑(愛)이라는 말은 오해를 일으킨다. 엄밀한 의미에서 동성 간의 우정 또는 동성 간의 일반적인 인간적 사랑은 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에로틱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가 아니다. 따라서 homosexuality는 동성간 성행위라고 번역해야 보다 정확하다.

동성애인양 은근히 선전되고 있지만, 동성애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개념이 많다. 예를 들어 동성간 우정, 형제애, 전우애, 브로만스, homosociality(남자들끼리 친한 것) 등은 (성행위가 없으므로) 동성애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동성애를 한 적이 있거나 (예를 들어 어릴 때 실험적/모험적 동성간 성적 유희) 또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성간 성애(예를 들어 감옥, 고립 상황 등)를 한 적이 있으나, 지속되지 않는 한 “동성애자”가 아니다. 단순히 동성끼리 한 집에 사는 동거도 성애가 없는 한 동성애 관계가 아니다.

최근 학술단체들, 특히 미국 심리학회는 동성애에 감정적 및 로맨틱한 끌림을 포함함으로써 동성애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다. 우정은 감정적이며 낭만적인데 이를 동성애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의심된다. 로맨틱은 성적일 수 있지만 상당부분 비성적이다. 아마도 이는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어 동성애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고 동성애자로 recruitment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한다.

### 동성애 개념의 분화

요즘은 성적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무성애(asexual)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최근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용됨에 따라 동성애 정의에 “같은 젠더”의 사람끼리의 성애라는 정의가 추가되고 있다.<sup>4)</sup> 젠더에는 시스젠더 이외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가 포함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해 진다. 예를 들어 시스젠더가 트랜스젠더와 성교를 하는 경우 skoliosexuality라 한다. 그리하여 성적 지남에도 수십가지가 알려져 있다. 모든 종류의 사람과 성애를 한다는 경우는 범성애(pansexuality)라 한다. ,

---

3) Definitions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in APA Documents. <https://web.archive.org/web/20220419081802/>

4) “같은 젠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도 최근의 젠더라는 용어가 섹스를 대신하면서 생겨난 것이라 본다. 이때 섹스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고 젠더는 사회구성주의적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

또한 양성애가 전적인 동성애와 전적인 이성애 사이의 스펙트럼(연속선) 상의 문제인지, 다른 범주적(categorical)인지, 논란이 있다. 대체로 동성애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지만, 다차원적이라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sup>5)</sup>

**자의적 정체성 표방** – 이성애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가 교수는 자신이 실제로는 확실히 “행복한” 이성애자이지만, 페미니즘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 레스비언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한다.<sup>6)</sup>

이러한 개념 상의 다양성(diversity) 때문에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난감해지고 있다. 성지남 뿐 아니라 성(젠더)정체성(트랜스젠더)의 개념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성 존중은 현대사회의 풍조가 되고 있다.

\* 성지남에 속하지는 않지만, 성적 끌림이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에게로 향하는 경우를 소아성애(pedophilia)라 하는데, 여기서도 동성의 소아로 향하는 경우가 있다. 소아성애는 아직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나, 동성애가 범죄에서 정상화되었듯이, 소아성애도 성지남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면 North America Man/Boy Love Association 같은 조직이다)

섹스파트너가 자기인 경우는 자기애(narcissism) 또는 자위(masturbation)라 한다. 물건에 성적 끌림을 갖는 수도 있는데, 이는 물건애(fetishism)라는 성도착증이다. 페티시에는 파트너의 몸의 일부(머리카락, 손톱, 음모.), 파트너의 의상(속옷 등), sex toy, 등이 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의 관계** – 성지남은 자신의 성적 욕망이 이성을 향하는가 동성을 향하는가 하는 것이고, 젠더(gender)는 자신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하는 성(젠더) 정체성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자신이 남성임을 불편하게 여기고 여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 정체성 장애)이다. 그런 사람이 남성에게 에로틱한 욕망을 느낀다면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양 쪽 모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이성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기를 요구한다.

### III. 역사적 고찰

5) Ganna A. et al. Large-scale GWAS reveals insights into the genetic architecture of same-sex sexual behavior. Science 2019;365(6456):eaat76930.

6) [http://women.timesonline.co.uk/tol/life\\_and\\_style/women/relationships/article2002552.ece](http://women.timesonline.co.uk/tol/life_and_style/women/relationships/article2002552.ece).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지만, 19세기 이전에는 종교적 죄 또는 사회적 범죄였다. 19세기 중반부터 동성애는 정신의학에서 다루는 하나의 정신장애가 되었다. 이후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보고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치료하였던 전문집단은 정신분석가들이었다. 그들은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는 정신분석적 노력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라 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서구의 성혁명과 인권운동과 더불어 1970년대에 동성애자들에서도 프리섹스 풍조가 유입되고 인권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1970년대 초 수년간의 게릴라식 인권 시위가 미국정신의학회를 압박하였다. 그에 굴복한 미국정신의학회가 1973년 회원투표를 실시하여, 58%의 찬성으로 동성애를 그들의 「정신장애 진단통계편람, 제3판(DSM-III)에서 제외하였다. 이로써 동성애는 공식적으로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1977년 재조사에서는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69%가 동성애는 여전히 정신장애라 하였다.<sup>7)</sup> 그 의미는 동성애 정상화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정신의학회에 가해진 동성애 활동가들의 맹렬한 정치사회적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에 과학에 굴복한 의학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sup>8)</sup>

이후 정신의학회의 정상화 결정을 근거로 현재 동성애는 긍정적 라이프스타일로 홍보되고 있고, 교육되고 있고, 급기야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기까지 되었다.

**차별금지법** - 근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의 일환으로,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이성애로 “전환”시키려는 전환치료를 윤리의 이름으로 금지하며, 법으로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성애는 선천적이며 따라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환치료라는 말 자체가 동성애자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서구에서 동성애에 대한 스티그마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동성애자에 대한 징벌은 가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잔혹사는 없다.) 따라서 전환치료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들에게 역사적 스티그마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치료를 요청하는데도 치료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전환치료를 해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 보수우파 집단에 속한다) 서구에서의 동성애 논쟁은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성소수자, 퀴어

성 소수자는, 레스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을 의미하며 흔히 LGBT로 표현된다.

그런데 현재 새로운 종류의 성지남과 젠더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제더퀴어

7) Times. Sick Again? Psychiatrists Vote on Gays. 1978. February 20. 1978. <https://content.time.com/time/subscriber/article/0,33009,948045,00.html>

8) Bayer R. (1981), Homosexuality and American Psychiatry, Basic Books, New York.

(genderqueer), 무성애(asexual), 젠더의문(genderquestioning), 간성(intersex), 등이다. 이들을 LGBTIAQQ로 표현한다. 현재 젠더퀴어에는 약 50가지의 젠더정체성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성지남에도 skoliosexuality 같은 새로운 개념의 종류가 수십가지 제안되고 있다. 그래서 LGBTQ+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들 모두를 통털어 “queer”라고 표현한다.



그림1. 간성으로 태어난 아기의 성기 모습

평등법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란 이 퀴어와 간성(intersex)을 말하는 것 같다. 간성은 선천성 질병이다. (그림 1) 간성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정식 병명은, 코드번호 Q56으로, “불확정성 및 거짓반음양”(Indeterminate sex and pseudohermaphroditism)이다. 성발달장애 (disorders of sex developments. DSDs)라고도 한다.

### 동성혼과 다양한 가족형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도, 정상으로 인정받게 되고, 인권의 이름으로 차별당하지 으냥기를 요구하고, 나아가 또한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주는 혜택을 얻고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결혼의 법적 조건이 평등법에 의해 성소수자 모두, 즉 모든 퀴어들에게로 확대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트랜스남자(생물학적 성이 여자이지만 젠더정체성을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와 생물학적 여자와의 결혼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성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성혼이다. 또한 트랜스여자와 생물학적 남자와의 결혼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성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성혼이다. 이런 모든 가능한 상황은 결국 동성혼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확대되면 동성애, 이성애, 나아가 이 두 가지가 섞인 1+1+1, 2+2 등의 성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성혼이나 이성혼을 막론하고, 또는 그 두가지

가 섞인 1+1+1, 2+2 등의 결합을 의미하는 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 집단결혼, 난혼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결혼이 “다양한 가족”이 되면, 가족은 당연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므로, 동성혼 커플이나 기타 “다양한” 종류의 집단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트랜스여자(실제는 남자)가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려 하고 있다

###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제안

동성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sup>9)</sup>: LGBT와 이성애와 시스젠더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LGBT 사람들을 포용하자. 의학적 위험성은 있지만, 줄이면 된다. 그 줄이는 방법은 ① 구강성교를 주로 하게 하고 항문성교는 가능한 하지 말고, ② 위험 파트너를 만나지 말고, 전체 파트너 수 줄이고, ③ 콘돔을 사용하게 하고, ④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 분위기 만들 연구를 하자. 등등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LGBT에 대해 이해하지만, 아래 글을 통해 의과학적 차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LGBT 사람들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수정하는 것 같지 않으며, 여러 홍보활동을 통해 LGBT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LGBT에 대한 연구를 하지는 말은 LGBT를 증진하는 연구를 하지는 의미 같고 아젠다를 독점하겠다는 의도 같다.

9) Acharya Y, Raghavendra MV, Acharya B, Priyanka RNK, Raj BV. Understanding Homosexuality: Challenges and Limitations. J Morphol Anat 2017;1:104.



## IV. 동성애의 원인과 치료

### 1. 생물학적 원인론

1990년대부터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들은 쌍둥이 연구, Xq28 유전설, 태내 성호르몬 노출설, 뇌구조 이상설, 면역설(형효과), 후성유전설, 진화론, 동물관찰 등등이 “제안되었을 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sup>10)</sup>

동성애 유전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3편의 인간게놈연관연구(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가 있는데,<sup>11)</sup> 그 모두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최종적으로 2019년 4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Gana 등의 연구는 전장유전체연관분석에서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동성애 행동과 관련된 유전자들 몇 개와 유전적 특성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주요 정신장애들(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과 관련된 유전자들 내지 특성들이었다.<sup>12)</sup>

그리하여 이제는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적 지남의 원인을, 이성애의 원인을 모르듯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과학자들은 동성애가 아마도 유전적, 호르몬적, 환경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다고 이론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굳이 “선택”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신분석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2. 정신적 원인과 전환치료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조되는 동성애의 정신사회적 원인론은 오래되었다. 20세기부터 동성애

---

10) Whitehead NE. My Genes Made Me Do It!. Huntington House Pub. 1999.

Mayer LS, McHugh PR.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The New Atlantis 2016;50(Fall):4-143.

김원평, 민성길, 류현모. (2022).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국민일보.

11) Drabant EM, Kiefer AK, Eriksson N, Mountain JL, Francke U, Tung JY, Hinds DA, Do CB 23andMe, Mountain View, CA(2012).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n a large, web-based cohort.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nual meeting. Nov 6-10, 2012, San Francisco.

Sander AR, et al.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tific Reports. 2017; 7, Article number: 16950. doi:10.1038/s41598-017-15736-4

Gana A, et al. Large-scale GWAS reveals insights into the genetic architecture of same-sex sexual behavior. Science 2019;365(6456):eaat76930..

12) Gana A, et al. Large-scale GWAS reveals insights into the genetic architecture of same-sex sexual behavior. Science 2019;365(6456):eaat76930.

Price M. Giant study links DNA variants to same-sex behavior. Science Magazine. Oct. 20, 2018. <https://www.sciencemag.org/news/2018/10/giant-study-links-dna-variants-same-sex-behavior>

는 정신분석으로 치료되어 왔다(이를 전환치료라 한다).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오이디푸스복합과 관련하여 정신성발달에서의 중단(arrest in psychosexual development)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3)</sup> 그의 제자들은 동성애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어려서 부모와 자식간의 삼각관계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다.<sup>14)</sup> 최근 학자들은 동성애가 어려서의 역경 경험 특히 성적인 트라우마를 받은 경험음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특히 게이인 경우 동성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원인론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는 정신치료(전환치료)도 발전하여 왔다. 그 치료방법으로는 ① 정신분석적과 역동적 전환치료 (conversion therapy), ② 학습이론에 근거한 행동치료(특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혐오치료가 있다), ③ 정신역동적 이론과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통합한 회복치료(reparative therapy)가 있다. 이는 현재 SAFE-T(sexual attraction flu-

---

13) Freud S. (1935). Letter from Sigmund Freud. *Am J Psychiatry*, 107, 1951:107(10):787-788.

14) Bieber I, Dain H, Dince P, Drellich M, Grand, H., Grundlach, R., et al. *Homosexuality: A psychoanalytic study*. New York: Basic Books. 1962.

Bergler E. *Homosexuality: Disease or way of life?* New York: Collier Books. 1956.

15) Andersen JP, Blosnich JD. Is parity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ults: results from a multi-state probability-based sample. *PLoS one*. 2013. DOI: 10.1371/journal.pone.0054691

Wells JE, McGee MA, Beautrais AL. Multiple Aspects of Sexual Orientation: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in a New Zealand National Survey. *Arch Sex Behav* 2011;40(1):155-68.

Bos HMW, Sandfort TGM, De Bruyn EH, Hakvoort EM. Same-sex attraction, social relationships,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school performance in early adolescence. *Dev Psychol* 2008;44:59-68.

Sandfort, T.G., et al. Same-sex sexuality and quality of life: findings from the Netherlands Mental Health Survey and Incidence Study. *Arch Sex Behav* 2003;32:15-22.

Rubinstein G. Narcissism and Self-Esteem Among Homosexual and Heterosexual Male Student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010;36:24-34.

Sandfort, T.G., et al. Same-sex sexuality and quality of life: findings from the Netherlands Mental Health Survey and Incidence Study. *Arch Sex Behav* 2003;32:15-22.

McLaughlin KA, Hatzenbuehler, Xuan, Z., Conron, K.J. Disproportionate exposure to early-life adversity and sexual orientation disparities in psychiatric morbidity. *Child Abuse Negl* 2012;36(9):645-655.

Ellis B. *Analysis: Female Homosexuality Connected to Broken Homes*. 2010.

<http://www.cdc.gov/nchs/nsfg.htm>

Roberts A, Glymour MM, Koenen KC. Does maltreatment in childhood affect sexual orientation in adulthood?. *Arch Sex Behav* 2013;42:161-171.

Zietsch BP et al. Do shared etiological factors contribut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2012;42(3):521-532.

Nicolosi J. *The Traumatic Foundation of Male Homosexuality*. December 19, 2016.

<https://www.crisismagazine.com/2016/traumatic-foundation-male-homosexuality>

Nicolosi J. *What is reparative therapy? Examining the controversy*. 2015.

<http://www.narth.com/#!important-updates/c19sp>

identity exploration in therapy)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또한 ④ 기독교 신앙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하는 돕는 탈동성애 사역(ex-gay ministry)이 있다. 이들을 전체적으로 "성적 끌림 변화 노력"(sexual attraction change effort, SOCE)이라고 한다.

이런 이상하고 복잡한 명칭들은 서구의 전문학술단체들의 압력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의 정신건강 관련 학술단체들은 지난 100여년 동안 자신들의 선배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동성애 전환치료를, 갑자기 효과도 없고 트라우마만 줄 뿐이라고 하며 금하고 있다. 대신 동성애확인치료(gay affirmative therapy)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치유상담가가 동성애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과 차별하는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로 인한 동성애자의 괴로움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동성애자가 괴로움을 극복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동성애자로 당당하게 살 것을 조언하고 격려하는 상담 기법이다. 이런 학술단체들의 주장에서의 변화는 "인권"이라는 시대정신에 힘입어 과학적 사실보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희망스러운 바는, 지금은 차별금지의 분위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동성애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런 의학적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치료는 이미 살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개인의 선택(choice) 이론

일부 크리스천들은 동성애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본다. 즉 동성애는 원인이 어떠한지, 동성애를 "의지"(will)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성애자들이 섹스하는 이유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여러 이유로 금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동성애자들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동성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탈동성애 사역(ex-gay ministry)은 신앙에 근거하여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이 견해를 맹렬히 반대한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기에 만족시켜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 V. 동성애 행동과 그 건강문제

### 1. 동성애 행동

대표적인 동성간 섹스는 항문성교(anal sex, sodomy)이다. 그 외 단지 섹스 파트너가 동성일 뿐, 이성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동이 동성애에서도 모두 나타날 수 있다.

1997년 보고<sup>16)</sup>된 남자 동성 성애 행동은. 25세 내외의 경우, 애무(sensuous touching) 96.4%, 깊은 키스(deep wet kissing) 87.0%, 단순한 키스(dry kissing) 86.2%, 상호 자위(mutual masturbation) 92.3%, 구강성교(사정 없는) being sucked 92.3%, 구강성교sucking 90.9%, 등이 가장 흔하다. 그 외 (사정하는) (being sucked) 구강성교 46.6%, (sucking) 구강성교 30.7%, Finger fucking insertive 61.6% (receptive 65.7%), 항문성교 insertive 43.1%, receptive 45.3%, Anal with withdrawal insertive 32.7% receptive 31.3%, 입과 항문의 접촉(Rimming) being sucked 40.7%, sucking 56.4%, 주먹넣기(fisting) insertive 8.3% receptive 8.8% 등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다음에 기술하는 다양한 신체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여성 동성애의 성행위에는 구강성교, 상호 자위 행동, 부비기, 도구 사용 등이 있다.

**항문 성교(anal sex)** - 어떤 자료에 의하면 90%의 게이가 항문(직장) 성교를 한다. 2/3가 정기적으로 항문성교를 한다. 연 평균 110명의 섹스 파트너와 만나 68회의 항문성교를 한다고도 한다.<sup>17)</sup>

항문성교는 위험하다. 문성교시 직장은 하나의 용기가 되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부에 저장한다: 자신의 변, 타액(침)과 그 속의 세균들, 콘돔의 윤활유에 있는 가공물(artificial), 음경에 묻어있던 세균이나 화학적 물질들, 정액 등등

직장 벽은 한 층의 세포막으로 되어 있어 매우 얇고 연약하다. 세균이나 정자는 직장 내벽을 쉽게 뚫고 들어간다. 그리하여 면역적 공격에 취약하다. 음경의 삽입활동에 의해 쉽게 찢어지거나 명든다. 그리하여 세균이나 유해 물질들이 쉽게 혈관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다. (이성애의 경우 질의 내벽은 여러 세포층으로 구성되고 두꺼워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질 속에는 변이 있을 수 없다.<sup>18)</sup> 즉 항문성교는 간염, HIV, 매독, 기타 피로 전염되는 병들이 전염되는 가장 위험한 성적 행동이다.

남자 동성애자(게이)들의 성행동에는 난폭한 행동이 많다. 예를 들어 주먹넣기(fisting)라는 행동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항문으로 손이나 팔뚝을 밀어 넣는 것이다. 주먹 이외에도 인형, 당근, 등 무엇이든 항문 속으로 삽입된다.<sup>19)</sup> 이로서 항문벽이 쉽게 찢어진다. 이는 의학적 응급상태이다. 이 피스팅은 키제이 보고서가 나온 1940년대에서는 드물었다 한다. 그러나 1977년까지 거의 1/3의 게이들이 이 피스팅을 하게 된다. 문제는 직장은 이 음경이나 주먹이나 이물질들을

16) Van de Ven, P. et al. A Comparative Demographic and Sexual Profile of Older Homosexually Active Men. Journal of Sex Research 1997;34:354.

17) Weinberg G. SOCIETY AND THE HEALTHY HOMOSEXUAL. NY St. Martin's, 1972, preface.

18) Manligit GW, et al. Chronic immune stimulation by sperm alloantigen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4;251:237-38.

19) Adams C. The Straight Dope. THE READER (Chicago, 3/28/86)

받아 들이기는데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들은 이후 항문 손상에 의한 변실금으로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한다.

**구강성교(oral sex)** - 구강성교시 정액을 삼키기도 한다. 정액은 사정하는 사람의 피에 있는 세균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가 있어, 위험하다. 음경은 표피에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입안의 세균들이 감염될 수 있다. (그 음경이 항문/직장 안에 삽입되어 있었던 적이 있을 수 있어 직장에 있던 물질들이 입으로 바로 들어 올 수 있어 더욱 비위생적이다.) 구강성교를 통해 A형 간염과 매독과 임질 같은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 물론 HIV나 B형 감염도 가능하다.

많은 성접촉이 낯선이들과 이루어지는데, 그 상대 동성애자는 1년에 약 106-1,105명과 상대하는 사람일 수 있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게이가 오로지 한 사람의 파트너와 섹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변섹스(fecal sex)** - 약 80%의 게이들이 입이나 혀로 상대의 항문을 핥거나 혀를 항문 속으로 삽입시키기도 한다. 그 바람에 상당량의 변을 먹을 수도 있다. 10%의 게이들이 실제로 의도적으로 변을 먹거나 변으로 놀이(관장, 덩굴기)하기도 한다. 한 초기 연구<sup>20)</sup>는 80%의 게이들이 이 행동을 하였다 하며, 절반은 정기적으로 하였다 보고하고 있다. 그 위험은 매우 크다. 그 결과는 A형 간염과 장내 기생충 감염이었다. 1991년 전반기에 미국 주요도시에서 발생한 A형 간염환자의 42-66%가 게이였다고 보고한다.<sup>21)</sup>

**소변섹스(urine sex)** - 키제이가 보고한 게이들 중 10%는 "golden showers"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변을 마시거나 끼얹는 것이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 23%가 소변섹스를 하였다고 하며<sup>22)</sup> 가장 큰 무작위 연구에서는 게이들의 29%가 소변섹스를 한다 하였다.<sup>23)</sup>

한 샌프란시스코 연구에서 655명 게이들 중 24%만 지난 일년 동안 일부일처제적이었다 (정절을 지켰다) 한다.<sup>24)</sup> 이 정절을 지킨다는 monogamous gay들 중에서도 5%는 소변을 마셨고, 7%는 "fisting"을 하였고, 33%는 anal/oral contact를 통해 대변을 먹었다고 하였고, 53%는 정액을

---

20) Corey L, Holmes KK. Sexual transmission of Hepatitis A in homosexual me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80;302:435-438.

21) CDC. Hepatitis A among homosexual men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MMWR 1992;411:55-64.

22) Jay K, Young A. THE GAY REPORT. NY Summit, 1979.

23) Cameron P, et al.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Nebraska Medical Journal, 1985;70:292-99;

Effect of homosexuality upon public health and social order. Psychological Reports 1989;64:1167-79.

24) McKusick L, et al. AIDS and sexual behaviors reported by gay men in San Francisco,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5;75:493-96.

먹었다고 하였고, 59% 는 정액을 지난 한달 기간에 직장 속에 보관했었다고 하였다

**어린 아이와의 섹스** - 백인 게이의 25%가 16세 이하의 어린 소년과 섹스하였다 한다.<sup>25)</sup> 이는 동성애 소아성애(homosexual pedophilia) 이다. 9개 주를 포함한 한 연구에서, 게이교사 181명 중 33%, 레스비언 교사 18명 중 22%가 학생들을 동성애적으로 성 학대하였다 한다.<sup>26)</sup> 한 다른 연구는 남교사의 3%와 여교사의 2%는 학생들과 동성애를 했다 한다.<sup>27)</sup>

### 가학피학증(sadomasochism)

동성애 관계는 흔히 지배-피지배적(능동-수동적) 이다. 그래서 성적 재미를 위해 상당수가 고문이나 학대를 시행하거나 받는다.

## 2. 신체적 합병증

### 불임

성은 본래 의미에서 생식(reproduction)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불임(sterility)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죄로 여겼고, 현대사회에서도 불임은 병이다. 동성애는 결과적으로 불임이다. 흔히 사람들은 동성애를 불임이라는 상태로 인식하지 않고 쾌락추구라는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동성커플은 당연히 불임 커플이다.

### 성병

다수 동성애자들은 성병에 걸려 있다. 동성애자들이 여러 파트너와 빈번하게 항문 성교나 구강성교를 함으로 성병을 감염받고 건강을 해친다. 즉 임질, 매독, HIV-AIDS,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등이 흔하고, 특히 에이즈 등이 생명을 위협한다.<sup>28)</sup> 성병은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에 자주 발견된다. 게이의 70%<sup>29)</sup> 또는 78%<sup>30)</sup>가 성병을 앓는다.

**특히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성병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미국 전체 백인 에이즈 환자의

25) Bell A, Weinberg M. HOMOSEXUALITIES. NY Simon & Schuster, 1978.

26) Rubin S. Sex Education Teachers Who Sexually Abuse Students.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Psychology, Sydney, Australia, August 1988.

27) Cameron P, Cameron K. Prevalence of homosexuality. Psychology Reports, 1993, in press;  
Melbye M, Biggar RJ. Interactions between persons at risk for AID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Denmark.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992;135:593-602.

28) Coxon et al. Sex Role Separation in Diaries of Homosexual Men. AIDS 1993;(July3):877-882.

29) Schechter MT, et al. Changes in sexual behavior and fear of AIDS. Lancet 1984;112:93.

30) Jay K, Young A. THE GAY REPORT. NY Summit, 1979.

83%가 게이에서 발생하였다.<sup>31)</sup> 에이즈의 파괴력은 대단하였다.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였던 사람들도 에이즈에 걸렸고 결핵과 기타 질병에 걸렸다.<sup>32)</sup> 의료종사자로부터 에이즈에 걸린 환자도 있다.<sup>33)</sup> 에이즈 환자와 같이 살던 사람들도 위험에 처했다.<sup>34)</sup> 성기 뿐 아니라 특히 목구멍과 직장(항문)에 발병된 성병은 동성간 항문성교나 구강 성교 때문이다.<sup>35)</sup>

레즈비언들도 여성과의 성관계 뿐만 아니라 성병에 걸린 남성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성병에 걸린다.

동성애자들에게 성병들이 중첩되어 감염되는 수가 많다. 즉 매독에 감염되면 성기의 염증이 HIV 감염률을 2배에서 5배 정도 높인다.

**지금은 간염도 성병으로 취급된다.**<sup>36)</sup> 간염은 남성 동성애자들에서 흔히 발병하고 있다. 게이들은 A형, B형, C형 등 모든 감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매우 높다.<sup>37)</sup> 특히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동성애자들은 B형간염, C형 간염, 매독이 동시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 동성애자들의 축제 때 사방으로부터 동성애자들이 모여 뒹으로 그들 사이에 간염이 창궐한다.<sup>38)</sup> (그래서 서구의 보건당국은 게이 축제를 방문할 때는 간염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권고한다.)

간염과 이질이 많은 것은 입-항문 접촉 때문이다. 장내 기생충(회충, 편충, 아메바 등)도 25%<sup>39)</sup>에서, 39%<sup>40)</sup>에서, 그리고 59%<sup>41)</sup>에서 보고되었다.

---

31) CDC HIV/AIDS SURVEILLANCE, February 1993.

32) Dooley WW. et al. Nosocomial transmission of tuberculosis in a hospital unit for HIV-invested patien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2;267:2632-35.

33) Ciesielski C. et al. Transmiss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 a dental practic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992;116:798.

CDC Announcement Houston Post, 8/7/92.

34) Dooley WW, et al. Nosocomial transmission of tuberculosis in a hospital unit for HIV-invested patien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2;267:2632-35.

35) Vincelette J et al. (1995). Predicators of Chlamydial Infection and Gonorrhea among Patients Seen by Private Practitioners.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995;144:713-721.

Jebakumar SPR et al. Value of Screeningfor Oropharyngeal Chlamydia Trachomatis Infection.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48:658-661.

36) Hart HG et al. Risk Behaviour, Anti-HIV and Anti-Hepatitis B Core Prevalence in Clinic and Non-clinic Samples of Gay Men in England, 1991-1992. AIDS 1994;(July):863-869.

37) <http://www.cdc.gov/hepatitis/hav/afaq.htm>

<http://www.cdc.gov/hepatitis/Populations/PDFs/HepGay-FactSheet.pdf>

38) WHO. Hepatitis A outbreaks mostly affecting men who have sex with men European Region and the Americas. <http://www.who.int/csr/don/07-june-2017-hepatitis-a/en/>

39) Jaffee H, et al. National case-control study of Kaposi's sarcoma.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983;99:145-51.

**엠폭스(M-Pox 원숭이 두창)** -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간 밀접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엠폭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신규 감염자의 동선과 정보를 공개하는데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42)</sup>

**동성애자에게 성병이 많은 이유** - ① 동성애자 특유의 문란성, 충동적 casual sex, 및 안전한 성(safe sex)에 대한 소홀함 등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흔히 성병이나 HIV의 위험을 알면서도 쾌감을 위해 콘돔 없이 성교를 한다. ② 성병 원인균들이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임에 따라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③ 프렙 요법((PrEP, pre-exposure prophylaxis)을 받으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콘돔 사용을 줄인 결과 성병에 더 노출되고 있다.

**최근 성병이 급증하고 있다** - 동성애가 용인되고, 사회적 관용이 증가하고, 특히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였던 에이즈가 프렙 요법에 의해 억제되고 예방된다는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함부로 "위험한" (보호되지 않은-콘돔을 쓰지 않는) 섹스를 하고 있다.

\* 동성간 결혼을 함으로 섹스 파트너 관계가 일정하다(exclusivity) 해도 성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동성간 성에서의 위험한 행동은 안정된(steady) 관계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성행위(unprotected intercourse)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3)</sup>

안정된 관계의 레스비언에서도 게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위협 받는데, 그 이유는 레스비언들은 과거 동성애 또는 양성애 남자들과 성접촉을 했을 가능성과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남용자들과 성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커플 관계에서 오히려 더 보호되지 않은(unprotected) 위험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 감염의 전파 패턴

동성애자들이 가진 세균들이 그들끼리에만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게이들은 산프란시스코와 뉴욕으로부터 HIV를 전 세계로 실어 날랐다.<sup>44)</sup> 1992년 오염된 피로부터 에이즈가 감염된

40) Quinn TC, et al. The polymicrobial origin of intestinal infection in homosexual me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83;309:576-82.

41) Biggar RJ, et al. Low T-lymphocyte ratios in homosexual me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4;251:1441-46.

42) 뉴스1. N차 감염 시작한 엠폭스. 2023.04.18.

43) Hart HG et al.. Risk Behaviour, Anti-HIV and Anti-Hepatitis B Core Prevalence in Clinic and Non-clinic Samples of Gay Men in England, 1991-1992. AIDS 1994;(July):863-869.

Garbo J. More Young Gay Men are Contracting HIV from Steady Partners. GayHealth July 25, 2001.

44) Beral V. et al. Risk of Kaposi's sarcoma and sexual practices associated with faecal contact in homosexual



6,349명의 미국인들 중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에게서 감염되었을 뿐 아니라, 동성애 행동을 했던 남자와의 이성애를 통해 에이즈에 걸린 캘리포니아의 여성들로부터 받았다.<sup>45)</sup>

“**생물학적 감염 교환소**”(The Biological Swapmeet) – 동성애자들의 전형적 성행위 행태는 의학적으로 공포스럽다. 동성애자 각 개인들은 매년 10여명의 다른 남자와 정기적으로 침의 교환, 대변의 교환, 정액의 교환, 피의 교환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만남은 흔히 술취함, 마약중독에서의 ”하이“ 상태, 난장판 섹스 파티(orgy)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장소들은 대개 비위생적이다. (목욕탕, 더러운 peep show 시설)

그리고 매년 1/4의 동성애자들은 세계 여러 곳을 여행 다닌다.<sup>46)</sup> 그리하여 전세계적으로 세균들과 바이러스가 교환된다. 새로운 미국의 세균들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이들 대륙으로부터도 토착 세균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섞인다. 수많은 외국의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각기 가진 것들을 교환한다.

감염교환소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197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애자들 사이에 성홍열이 크게 유행한바 있다.<sup>47)</sup>

### 게이장증후군(Gay Bowel Syndrome)

동성애 행위와 관련되어 생기는 위와 장의 장애를 전체적으로 Gay Bowel Syndrome이라 한다. 이는 게이 환자들에서 발견되는 항문 주변과 직장에서 발견되는 성적으로 감염된 질병 또는 성행위로 인한 상처들을 통칭하는 증후군이다.<sup>48)</sup> 1970년대 즉 에이즈 이전 시대에 이 병이 동성애에 관련되어 주목받던 질병이었다. 이에 포함된 질병에는 위에서 언급한 항문손상 이외, 곤지름, 원인불명의 직장염, 아메바 성 이질, 항문소양증, 양성 종양, 간염 등이 있다. 이전에는 이 증후군은

---

or bisexual men with AIDS. Lancet 1992;339:632-35.

45) Cameron P, Playfair W, Wellum S. The lifespan of homosexuals. Paper presented at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April 17, 1993.

46) Biggar R, et al. T-lymphocyte ratios in homosexual men. Epidemiologic evidence for a transmissible ag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4;251:1441-46.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Low-T-lymphocyte-ratios-in-homosexual-men.-evidence-Biggar-Melbye/4b09b5586ca199f50869d487a66ca3fce0529497>

Wall Street Journal, 7/18/91, B1.

47) Dritz, S. Medical aspects of homosexual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80;302:463-4.

48) Jack Morin. Anal Pleasure and Health: A Guide for Men and Women (San Francisco: Down There Press, 1889. p. 220.

대체로 proctitis(항문염증)로 간주되었다. 게이 장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한 감염성 세균들과 원충들이 배설물을 섞여 입과 위와 소장, 대장, 직장 등 창자로 전달된다.

특히 이질은, 서구의 깨끗한 위생환경에서, 유독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항문을 입으로 핥는 리밍(rimming)이라는 성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성관계시 치과용 덴탈댐을 사용하라고 한다.<sup>49)</sup>

## 암

동성애자에게 암의 발생 위험이 두배로 높다.<sup>50)</sup> 특히 항문의 암 발생률은 일반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 당 1.4명임에 비해, 남자 동성애자의 경우 10만 당 35명이며,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78.2명까지 증가한다.

최근 인유두종바이러스가 남자의 항문 암, 구강암, 설암, 인후암, 여성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여성역할을 하는 항문 성교자들에게 HPV에 의한 항문암이 많이 발생한다. HIV와 관련된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도 일종 암이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으로 알려진 가다실을 접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항문손상

항문 내벽과 직장 더 깊이는 대장의 점막은 일개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 매우 연약하다. 이 때문에 음경이나 주먹이나 물건의 삽입에 의해 쉽게 찢어질 수 있다.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감염이 일어나 농양이 생길 수 있으며, 치료되지 않으면 항문 괄약근의 손상으로 변실금이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저귀를 차야 한다) 드물지만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이 올 수도 있다.

## 의학적 조언

의사들은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에 대해 "특수한" 건강상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미국의 Mayo Clinic의 의사들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sup>51)</sup>:

성병 감염으로부터 보호/예방하라. 매번 새 콘돔을 사용할 것. 항문성교시는 물론 구강 성교시도 콘돔을 사용하라.

성병이 없는 한 사람의 섹스 파트너를 둘 것 (가능한 장기간)

49) <https://www.cdc.gov/shigella/pdf/msm-factsheet-508.pdf>

50) Boehmer U, et al. Cancer Survivorship and Sexual Orientation, Cancer 2011;117:3796-3804.

51) Mayo Clinic Staff. Health issues for gay men and other men who have sex with men. Jan 26, 2023. <https://www.mayoclinic.org/healthy-lifestyle/adult-health/in-depth/health-issues-for-gay-men/art-20047107>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말 것 (취하면 위험한 섹스를 할 가능성이 커짐)  
 약물 사용시 주사바늘을 공유하지 말 것  
 간염백신을 맞을 것 (C 형 간염은 백신 효과 없고 가나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The human papillomavirus (HPV)을 맞을 것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Mpox (원숭이 두창) vaccination을 맞을 것  
 자신과 파트너에 대해 정기적 검사할 것 (파트너를 믿을 수 없기 때문) – 특히 암검사: 전립선암, 항문암, 대장암, 고환암 등  
 AIDS 예방을 위해 pre-exposure prophylaxis (PrEP)을 고려할 것 – 이 역시 완벽하지는 않음으로 콘돔 같은 예방 조치는 항상 필요하다.

## VI. 정신건강 문제

### 1. 동성애 관련 정신건강문제

동성애 옹호론 – 동성애 옹호론자들<sup>52)</sup>과 미국 의학계<sup>53)</sup>는 동성애는 자연적인 정상적 섹스라

52) Coghlan A. Gay brains structured like those of the opposite sex. New Scientist. 16 June 2008.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dn14146-gay-brains-structured-like-those-of-the-opposite-sex/>

James G. Pawelski, et al.. The Effects of Marriage, Civil Union, and Domestic Partnership Law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Pediatrics 2006;118:349-365.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18/1/349.full>

5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Marriage and the Family. 28 December 2019.

Lamanna MA, et al. Marriages, Families, and Relationships: Making Choices in a Diverse Society. Cengage Learning. 2014. p. 8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says that sexual orientation is not a choice. 2010.

Pediatrics. The Effects of Marriage, Civil Union, and Domestic Partnership Law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https://publications.aap.org/pediatrics/article-abstract/118/1/349/69577/>

The-Effects-of-Marriage-Civil-Union-and-Domestic?redirectedFrom=fulltext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et al. "Brief of [medical organizations]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Petitioners"(PDF). [supremecourt.gov](https://supremecourt.gov). Archived from the original(PDF) on 12 April 2019. [https://web.archive.org/web/20190412074914/https://www.supremecourt.gov/ObergefellHodges/AmicusBriefs/14-556\\_American\\_Psychological\\_Association.pdf](https://web.archive.org/web/20190412074914/https://www.supremecourt.gov/ObergefellHodges/AmicusBriefs/14-556_American_Psychological_Association.pdf)

고 말하면,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도 행동이나 건강면에서 이성애자 커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sup>54)</sup>는 어린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게이 커플 80쌍 및 레스비언 커플 53쌍을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이성애자 커플 80쌍과 장기적으로 관계에서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였다. 비교항목들의 50%에서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차이가 나는 항목들의 78%에서는 동성커플이 이성커플보다 더 잘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성 커플은 키우는 어린이가 없고, 이성애 커플은 키우는 아이가 있어(배우자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교라 할 수 없다.

### 실제 연구결과

그러나 실제 많은 임상연구들은 동성애 관계의 사람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우울증, 약물남용,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를 더 많이 가지며 자살 위험도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sup>55)</sup>

한 쌍둥이 연구는 동성애자는 그 쌍둥이 형제 보다 정신건강 문제가 많고 특히 자살 시도할 확률이 6.5배 높다고 하였다.<sup>56)</sup>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1989-2016 사이 동성결혼한 사람 전체(n=28 649)와 이성결혼한 사람(n=3 918 617) 전체의 자살율을 비교하였을 때 동성결혼한 경우, 97명으로 이성결혼한 경우 6,074명 보다, 자살율이 adjusted IRR of 2.3 (95% CI 1.9 to 2.8)으로 높았다.<sup>57)</sup> 특히 젊은 사람들과 여성에서 높았다. 또한 시간에 지나면서 자살율은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대규모 연구로는 Liu 등의 연구가 있다.<sup>58)</sup> 이는 1997-2009년 사이 미국에서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s(NHIS)를 통해 동성혼자와 이성혼자들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혼자, 사별자, 독신들과도 비교하였다. 조사 대상은 1,634명의 레스비언 혼인자, 1,659명의 게이혼인자 들이었다. 이전 연구들에서 결혼자는 비결혼자보다 건강이 좋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주 연구결과로서 동성 혼인자는 독신보다는 건강 좋았다. 그러나 게이이든 레스비언이든 동성혼인자는 이성혼인자보다 건강이 나빴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게이 혼인자 61%는 이성혼 남자보다 건강이 나빴고, 레스비언 혼인자 46%도

---

54) Kurdex LA. Are gay and lesbian cohabiting couples really different from heterosexual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04;66:880-900.

55) Drabant EM, Kiefer AK, Eriksson N, Mountain JL, Francke U, Tung JY, Hinds DA, Do CB 23andMe, Mountain View, CA.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n a large, web-based cohort.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Nov 6-10, 2012.

56) Herrell R et al. A Co-twin Study in Adult M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99;56:67-874.

57) Erlangsen A, Drefahl S, Haas A, et al. Suicide among persons who entered same-sex and opposite-sex marriage in Denmark and Sweden, 1989-2016: a binational, register-based cohort stud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19;0:1-6. doi:10.1136/jech-2019-213009

58) Liu H, Reczek C, Brown D. Same-Sex Cohabitators and Health: The Role of Race-Ethnicity,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J Health Soc Behav*, 2013; February 27, DOI: 10.1177/0022146512468280.

이성혼 여성보다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은 흑인이나 백인, 남자 여자, 등 인종과 젠더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2. 자폐증과 동성애

Attanasio 등<sup>59)</sup>에 의하면, 자폐장애자들(Autistics)은 정상적 신경전형자들(neurotypicals)에 비해,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Asexuality), 기타 비이성애자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성애자는 자폐증스펙트럼장애라는 진단을 받는 수가 많다. 또한 문헌 review를 통해 무성애와 ASD가 서로 공유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공유하는 요소란 산전 요인들, 성적 끌림과 성지남에 있어 로맨틱한 차원이 없음 및 파트너 없는 성적 욕망 등등이다.

George 등<sup>60)</sup>에 의하면 309명의 ASD환자를 조사한 결과 69.7%가 비이성애자였다. (뚜렛장애자 30.3%도 비이성애자였다)

Weir 등<sup>61)</sup>에 의한 한 온라인 조사에서 성인 ASD환자(1,183명)와 비자폐증적 대조군(1,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을 때, ASD환자군에 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더 많았다. 남자 ASD환자들에서는 양성애자가 많았고 여자 ASD환자에서는 동성애가 많았고 성행위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렸다.

Pecora 등<sup>62)</sup>의 2020년도의 한 review 논문은 ASD환자들도 성적 관심이 있으며, 성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 장애 때문에 건강한 성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부적절한 성행동을 하거나 성적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컸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러한 상관성(intersection)의 기제는 무엇일까?

ASD환자들은 어떤 경로로 정지남정체성을 갖는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고기능 ASD (high-functioning ASD)를 가진 환자 332명을 조사하였을 때,<sup>63)</sup> 그들 중 17명(5.1%)이 무성애

---

59) Attanasio M, Masedu F, Quattrini F, Pino MC, Vagnetti R, Valenti M, Mazza M. Are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Asexuality Connected? Arch Sex Behav. 2021;15.

60) George R, Stoles MA. Sexual Orientation in Autism Spectrum Disorder. Autism Res. 2018;11(1):133-141.

61) Weir E, Allison C, Baron-Cohen S. The sexual health, orientation, and activity of autistic adolescents and adults. Autism Res. 2021;14(11):2342-2354.

62) Pecora LA, Hooley M, Sperry L, Mesibov GB, Stokes MA. Sexuality and Gender Issues in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Child Adolesc Psychiatr Clin N Am. 2020;29(3):543-556.

63) Ronis ST, Byers ES, Brotto LA, Nichols S. Beyond the Label: Asexual Identity Among Individuals on the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Arch Sex Behav. 2021;50(8):3831-3842.

자였다. 그 원인으로 그들은 성적 끌림이 없다가보다, 욕구부족 및 기술부족 때문이라 하였다.

ASD 환자가 로맨틱 또는 성적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젊은 ASD 환자는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62명의 남녀 ASD 환자와 104명의 비ASD사람들 비교하였다.<sup>64)</sup> 그 결과 두 집단 사이에 관점과 욕망에서 차이보다 유사점이 많았다. 그러나 ASD환자군(특히 남자)에서 다양한 성행동이 적었다. 특히 여자 ASD 환자중에는 부정적 성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성교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였다. 지성된 섹스를 정체성으로 삼는 경우도 적었다. 늦게 ASD로 진단되고 지식이 많을수록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이 모두 많았다.

Lewis 등<sup>65)</sup>은 67명의 자폐증환자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들을 온라인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기술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① 자기를 받아들임은 긴 여정이었다(self-acceptance is a journey); ② 자폐증적 특성들은 성지남의 자기정체성을 혼란시켰다 (autistic traits complicate self-identification of sexual orientation); ③ 사회적 및 감각적 스트레스가 성적 표현에 영향을 미쳤다(social and sensory stressors affect sexual expression); ④ 이해받지 못하고 고립되었다(feeling misunderstood and isolated); ⑤ 상호 만족하는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challenges finding mutually satisfying relationships); ⑥ 성적 욕구를 인지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difficulty recognizing and communicating sexual needs). 이러한 자폐증적 특성 때문에 성숙한 성적관계를 갖지 못하고, 동성애나 무성애자가 된 것 아닌가 한다. 즉 비이성애는 미숙한 행동으로 신경발달의 미숙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LGBT 사람들에게, 이성애자나 시스젠더 사람들보다, 섭식장애나 식사행동에서의 문제들이 많다고 한다.<sup>66)</sup> 섭식장애(eating disorders)란 신경성 식욕부증, 거식적, 폭식증 등을 의미한다.

신체상(body image problems)에 있어 동성애 남자들은 (트랜스젠더 남자들도) 자신의 몸이 이상적인 근육형(체육형)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음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sup>67)</sup> 그 따라 우울증,

---

64) Joyal CC, Carpentier J, McKinnon S, Normand CL, Poulin MH. Sexual Knowledge, Desires, and Experienc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An Exploratory Study. *Front Psychiatry*. 2021;12:685256.

65) Lewis LF, Ward C, Jarvis N, Cawley E.J. Straight Sex is Complicated Enough!: The Lived Experiences of Autistics Who are Gay, Lesbian, Bisexual, Asexual, or Other Sexual Orientations.. *Autism Dev Disord*. 2021;51(7):2324–2337.

66) Parker LL, Harriger JA. Eating disorders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s in the LGBT popul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Eat Disord* 2020;8:51. <https://doi.org/10.1186/s40337-020-00327-y>

67) Jankowski GS, Diedrichs PC, Halliwell E. Can appearance conversations explain differences between gay

불안장애, 성적 부적합성(sexual self-efficacy)을 느끼고 있다.<sup>68)</sup> 레스비언들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섭식장애는 불만족스러운 신체상과 연관된다.<sup>69)</sup> 이 모두 과거와 현재 트라우마 경험과 관련된다 고 한다.

### 의학적 조언

의사들은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에 대해 "특수한" 건강상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미국의 Mayo Clinic의 의사들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sup>70)</sup>:

우울증, 양극성장애(조울증), 불안 등등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  
치료를 망설이게 되면 믿을 만한 친구한테 말하라

신체상 문제, 섭식장애(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 폭식증 등)도 있을 수 있다.

약물남용 - 담배, 술, 마리화나, 기타 마약 등등 - 즉각 중단하라

파트너에 대한 폭력(숨기려 한다) - 학대받는 사람은 폭력을 폭로하고 쉼터(shelter)를 찾도록 한다.

차별이 두려워 자신을 밝히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은 용기를 내어 자신을 밝히고 전문적 도움을 청하라

### \* 수명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건강문제는 결국 수명의 단축으로 귀결된다.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성행동들과 비위생성과 정신건강 장애는 그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이끈다. 따라서 동성애는 흡연과 비교된다. 흡연자나 약물중독자들은 비흡연자나 비약물중독자들 보다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담배는 해롭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해롭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수명은 짧다면 이는 동성애 행위가 그만큼 해롭다는 증거이다.

지난 12년간 미국의 16개 동성애 신문에 실린 부고 6,516개를 모아 정규 신문에 실린 부고들과 비교 분석한 연구가 유명하다.<sup>71)</sup> 정규신문에 실린 사망자의 평균수명은 미국 전체의 평균수명과

---

and heterosexual men's body dissatisfaction? Psychol Men Masculinity. 2014 Jan;15(1):68-77.

68) Blashill AJ, Tomassilli J, Biello K, O'Cleirigh C, Safren SA, Mayer KH. Body Dissatisfaction Among Sexual Minority Men: Psychological and Sexual Health Outcomes. Arch Sex Behav. 2016;45(5):1241-7.

69) Calzo JP, Austin SB, Micali N. Sexual orientation disparities in eating disorder symptoms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in the UK. Eur Child Adolesc Psychiatry 2018;27(11):1483-1490. doi: 10.1007/s00787-018-1145-9.

70) Mayo Clinic Staff. Health issues for gay men and other men who have sex with men. Jan 26, 2023. <https://www.mayoclinic.org/healthy-lifestyle/adult-health/in-depth/health-issues-for-gay-men/art-20047107>

비슷하였다. 결혼한 남자의 수명의 평균(medium age)은 75세였고, 80%가 65세 이후에 늘어 죽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남자는 평균은 57세로 32%가 늘어 죽었다. 결혼한 여성의 평균은 79세로, 85%가 늘어 죽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여성의 평균은 71세로 60%가 늘어 죽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수명의 중간값은 전국적으로 비슷하였고 전반적으로 2% 이하에서 65세 이후 늘어 죽었다. 에이즈가 사망 원인인 경우 평균 수명은 더 작아 39세였다. 829명의 게이가 에이즈 아닌 이유로 죽었는데, 그들의 중간값은 42세 였고, 9%가 늘어 죽었다. 163명의 레스비언들의 경우 평균 수명은 44세였고 20%가 늘어 죽었다. 2.8%의 게이들이 폭력으로 죽었다. 이는 백인 남자들의 나이에 비교하였을 때, 실패되었을 가능성이 116배 많은 것이었고, 자살 가능성은 24배 많은 것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18배 많았다. 심장마비, 암, 간장애 등에 인한 사망도 예외적으로 많았다. 20%의 레스비언이 실패, 자살, 또는 사고로 죽었는데, 이는 25-44세 사이의 백인 여성들보다 487배 많은 것이었다.

## VII. 동성 결혼의 행동윤리적 고찰

### 1. 원칙의 문제

동성 결합이 과연 결혼이라 할 수 있는가, 즉 동성 커플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가족은 과연 “가족”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연에는 짝짓기와 임신과 출산-양육, 그리고 가족의 구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인권을 중시하게 되면서 자연의 원칙이나 종교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동성혼 주장이 바로 그런 예중 하나이다. 현재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동성커플이 결혼이 될 수 없고, 그들의 공동체가 가족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원칙은 생식가능성(reproductive potential)과 생식투자(reproductive investment)에 있다고 한다. 생식가능성이란 자식에게 투자할 수 있는 유전적, 물질적, 및 사회적 자원(resource)을 의미하며, 생식투자란 그런 자원을 자식의 신체적, 및 사회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혼에서는 그러한 생식가능성과 생식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동성 커플에게 인공수정이나 대리모 생식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이성간 섹스를 하이재크(납치)하는 것이다.

---

71) Cameron P, Playfair W, Wellum, S. The lifespan of homosexuals. Paper presented at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April 17, 1993.



부부(夫婦)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라는 의미이다. 결혼한 한 쌍의 남녀이다. 내외. 부처(夫妻)라고도 한다. 그런데 동성 커플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라고 부를 수 없다. 동성혼, 동성부부 같은 용어는 이성혼과 부부 개념을 납치한 것이다. 동성혼의 가족은 인위적인 개념이다. 인위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만일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다른 다양한 가족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혼, 다부일처제, 일부다처제, 근친혼, 동물혼, 인형/로봇과의 결혼, 영혼결혼 등등도 다양한 가족이 될 수 있다.

## 2. 동성 결혼에서의 비윤리적 행동

**동성애는 건강행동이 아니며, 따라서 동성 결혼도 건강하지 않다.**

동성애는 동성간 우정이 아니며, 사랑(愛)이라기 보다 동성간 성교행위이다. 그런 동성애 자체에 의학적 문제, 즉 건강문제가 많다. 동성애자들이 행하는 성행위들이 당사자들에게는 비윤리적이 아닐지 모르나, 앞서 상술한 비와 같이, 분명히 비위생적이고 의학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병적 행동이다. 또한 그 병들이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퍼질 수 있어 비윤리적이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적 비용이 들게 만들 수 있다. 즉 자타에 해로움(harm)을 끼침으로 비윤리적이 된다.

동성애가 정상행동이기 때문에 동성혼도 윤리적이며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정상화된 것은 인류역사상 극히 최근의 일로, 과학적 근거에서라기 보다 1970년대 동성애 활동가들의 미국정신의학회에 대한 수년간의 폭력적 인권 시위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sup>72)</sup> 1973년 학회 회원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정상화"가 결정되었는데, 1977년 정신의학회 회원들에 대한 재투표에서는 동성애가 병적이라는 견해가 더 많았다.<sup>73)</sup> 이처럼, 이제는 학계의 결정도 과학적 근거에서 내려질 수도 있지만, 학회 외부로부터의 정치사회적 압력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윤리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동성 커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동성혼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다수 연구들이 동성애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그대로 동성 커플간에 나타난다고 한다.

---

72) Bayer R. Homosexuality and American psychiatry, The Politics of Diagnosis. With a New Afterword on AIDS and Homosex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7.

73) Time. Sick Again? Psychiatrists vote on gays. February 1978 Vol. 111 Issue 8, p.102AB

### ① 동성커플에서는 책무성(commitment)이 낮다.

서구에서 혼인신고나 시민결합을 신고해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의외로 실제 그 신고율이 낮다. 네델란드에서는 2001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는데, 동성 결혼 합법화 1년 이내 결혼할 수 있는 242,000명의 동성애자 중 실제로 결혼 신고는 2.8% 뿐 이었다.<sup>74)</sup> 스웨덴과 네델란드에서는 결혼을 구식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커 원체 결혼이 적다. 또 다른 연구는 동성애자 인구의 1-3% (전적인 게이 2.5%, 전적인 레스비언 1.4%임)<sup>75)</sup> 만이 결혼신고를 한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법적 이성혼자는 동성커플 보다 7대 1로 신고가 많았다.<sup>76)</sup>

이러한 낮은 commitment는 파트너로 동거하더라도 법적으로 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이성결혼에서와 같은 부양의무 같은 것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또는 사회에 노출되고 차별을 두려워해서인지 확실하지 않다.

### ② 동성 커플에서 이성애자 커플보다 관계의 지속성이 낮다. 즉 결혼의 기간이 짧으며 이혼률이 높다.

미국의 경우, 동성결혼은 결혼의 기간이 짧으며 이혼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1970년대부터 게이 운동가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즉 5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커플은 관계 이외 성행위를 서로 용인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sup>77)</sup> 전형적인 동성 커플의 동거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5년이며, 2년 이상인 경우는 드물다.<sup>78)</sup> 미국의 2000년대의 여러 통계는, 이성간 결혼의 지속기간이 10년 이상이 약 70%, 20년 이상이 약 60%인데 비해, 동성 커플은 각기 15% 및 5%라 한다. 2005년 한 대규모 비교 추적연구에서 나중 헤어질 경우가 이성간 결혼에서는 4%, 이성간 동거에서는 14%, 게이커플에서는 14%, 레스비언커플에서는 18%로, 동성커플의 관계가 깨어지는 비율이 이성커플보다 3-4배 많았다.<sup>79)</sup> The U.S. National Longitudinal Lesbian Family Study의 2010년 보고서는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으로 아기를 가진 레스비언커플의 40%가 조만간 헤어진다고 하였다.<sup>80)</sup>

74) OLR (The Office of Legislative Research) Research Report 2002.

75) Black A. Demographics 141. Census 2000 Special Reports, 2000. 4.

76) Bayles F. Vermont's gay civil unions mostly affairs of the heart: Law didn't spur legal battles or invasion. USA Today 2004. January 7, pp BI-B2

77) McWhirter DP, Mattison A(1984). The Male Couple: How Relationships Develo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4. p.252, 253.

78) Xiridou M, et al. The contribution of steady and casual partnerships to the incidence of HIV infection among homosexual men in Amsterdam. AIDS 2003;17(7). 1029-1038.

Saghir M, Robins E). Male and Female Homosexuality.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73. p.225.

79) Kurdek L. Are Gay and Lesbian Cohabiting Couples Really Different from Heterosexual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04;66:893.

### ③ 동성 커플은 모노가미(monogamy, 일부일처제) 형태의 관계를 갖는 수가 적다.

동성애 문화는 이성결혼에서 보는 일부일처제(monogamy) 이외의 다른 형태의 결혼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sup>81)</sup> 즉 대부분의 남자 동성애자의 경우 일부일처 관계는 억압이라 보고, 혼외 정사를 정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하여 1년이상 항구적(monogamous) 관계를 가진 동성애자는 단지 25%라 한다.<sup>82)</sup> 저자 Barry Adam은, “게이문화는 남자로 하여금 다른 것을 추구(탐험)하도록 하여 ... 이성애자들이 바라는 monogamy 이외 관계를 형성한다.”<sup>83)</sup> 동성애자의 단지 2.7% 만이 평생 한명의 파트너를 가진다고 한다.<sup>84)</sup>

2006년 UCLA의 한 연구는 레스비안과 게이는, 이성애자들에 비해 항구적 파트너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하며, 게이의 51%가 배우자관계를 갖지 않으며, 이성애자 여성은 21%, 이성애자 남자는 15%에서 그러하다.<sup>85)</sup> 이는 놀라운 차이이다.

1-7년간 동성애 관계를 유지한 156명의 남자들 중, 단지 7쌍이 전적으로 그들끼리만 성관계를 했으나, 그 기간이 5년 이내 였다. 즉 5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커플은 두 사람의 관계 이외 성행위를 용인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sup>86)</sup>

### ④ 게이 커플에서는 정절을 지키는 경우가 적다.

커플을 이루든 혼자 생활하든 동성애자들은 파트너 선택에서 문란하다. 이성결혼에서 남성은 70-80%, 이성결혼 여성은 80-90%에서 정절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으나, 동성애 남성들은 4-5% 만 정절을 지킨다고 한다.<sup>87)</sup>

---

80) Gartrell N, Bos H. U.S. National Longitudinal Lesbian Family Study: Psychological Adjustment of 17-year-old Adolescents. *Pediatrics* 2010;126(1): 28-36.

81) Adam BD. *Relationship Innovation in Male Couples*. 2006;9(1):5-26.

82) Lee R. Gay Couples Likely to Try Non-monogamy, Study Shows. *Washington Blade* 2003, August 22.

83) Ryan Lee R. Gay Couples Likely to Try Non-monogamy, Study Shows,” *Washington Blade*. August 22, 2003. p. 18.

84) Van de Ven, P et al. A Comparative Demographic and Sexual Profile of Older Homosexually Active Men. *Journal of Sex Research* 1997;34(4):349-360. doi.org/10.1080/00224499709551903

85) Strohm C. et al. Couple Relationships among Lesbians, Gay Men, and Heterosexuals in California: A Social Demographic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Convention Center, Montreal, Quebec, Canada, (Aug 10, 2006): 18. Accessed at: [http://www.allacademic.com/meta/p104912\\_index.html](http://www.allacademic.com/meta/p104912_index.html)

86) McWhirter DP, Mattison A. *The Male Couple: How Relationships Develo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4. p.252, 253.

87) Wiederman MW. Extramarital Sex: Prevalence and Correlates i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1997;34:170.

Laumann EO et al.(1994).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Sexu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217.

남자 동성간 결합에서 정절이 지켜지는 경우는 156쌍 중 7쌍으로 매우 드물며, 그 관계 지속도 대개 5년 이내이다. 레스비언 간 커플에서도 이와 유사하다.<sup>88)</sup>

한 2008년 연구는 “동성애자 남자의 40.3%는 civil unions 관계에, 그 밖의 게이들 중 49.3%는 서로 상의하여 상황에 따라 관계 밖의 성관계도 OK 라고 한다고 하였다.<sup>89)</sup>

**기타 동성성-문란성의 근거들** - 연구들에 따라 다르지만, 게이 가 공중 화장실에서 동성애를 했다는 경우는 14-60%였고<sup>90)</sup>, 게이 목욕탕에서 했다는 경우는 67%<sup>91)</sup>였다. 불법 약물을 투여한 경우는 64%<sup>92)</sup> 또는 90%<sup>93)</sup>였다.

### ⑤ 평생동안 동성애자들은 많은 파트너를 가진다.

학술지 AIDS에 출판된 한 네델란드 연구는 한 사람의 게이는 “항구적 파트너”(steady partner)로서 일년에 평균 8명의 파트너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sup>94)</sup> 평생에 걸쳐서 한 게이 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까지의 파트너를 가진다는 연구보고도 있다.<sup>95)</sup> 특히 Van de Ven 등<sup>96)</sup>은 2,583명의 나이 든 남자 동성애자 일인당 평생 동안의 파트너 수는 101-500명이며, 그 중

---

88) Schumm W. Comparative Relationship Stability of Lesbian Mother and Heterosexual Mother Families: A Review of Evidenc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10;46:499-509.

89) Sondra E. et al. Money, Housework, Sex, and Conflict: Same-Sex Couples in Civil Unions, Those Not in Civil Unions, and Heterosexual Married Siblings, Sex Roles 2005;561:575. doi.org/10.1007/s11199-005-3725-7

90) Gebhard, P. & Johnson, A. THE KINSEY DATA. NY Saunders, 1979.

Jay, K. & Young, A. THE GAY REPORT. NY Summit, 1979.

Cameron P, et al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Nebraska Medical Journal* 1985;70:292-99;

Cameron P, et al. Effect of homosexuality upon public health and social order. *Psychological Reports* 1989;64:1167-79. doi/10.2466/pr0.1989.64.3c.1167

Gebhard P, Johnson A. THE KINSEY DATA. NY Saunders, 1979.

91) Corey L. Holmes KK. Sexual transmission of Hepatitis A in homosexual me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80;302:435- 38.

92) Gebhard P, Johnson A. THE KINSEY DATA. NY Saunders, 1979.

93) Jaffee H. et al. National case-control study of Kaposi's sarcoma.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983;99:145-51.

94) Xiridou M, et al, “The Contribution of Steady and Casual Partnerships to the Incidence of HIV Infection among Homosexual Men in Amsterdam, *AIDS* 2003;17:1031.

95) Bell AP, Weinberg MS. *Homosexualities: A Study of Diversity Among Men and Wom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8.

96) Van de Ven, P et al. A Comparative Demographic and Sexual Profile of Older Homosexually Active Men. *Journal of Sex Research* 1997;3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47525210\\_A\\_comparative\\_demographic\\_and\\_sexual\\_profile\\_of\\_older\\_homosexually\\_active\\_men](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47525210_A_comparative_demographic_and_sexual_profile_of_older_homosexually_active_men)

10.2–15.7%는 501–1,000 명 사이이며, 그 중 일부는 1,000명을 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나이트 동성애자의 경우 단지 2.7% 만이 평생 한명의 파트너를 가진다고 하였다. Gudel<sup>97)</sup>의 review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난 1년간 에이즈 환자 한명당 평균 파트너의 수는 60명이라 한다.

1980년 이후 에이즈 공포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파트너 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다. Morin<sup>98)</sup>은 824 명의 게이가 파트너 수를 1982년 연 70여명에서 1984년 50여명으로 줄였다. McKusick<sup>99)</sup>은 연 76명에서 1985년 연 47명으로 감소하였음을, 한 스페인 연구는<sup>100)</sup> 1989년 연평균 42명이었다 한다.

**\* 정신역동적 설명** – 동성애자들은 파트너 선택에서 대단히 문란하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다수 파트너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 강박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게이 사이에서는 정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동성애가 주는 성적 쾌락 때문이라 할 수 있으나, 정신분석적으로 동성애에의 강박증은 그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masculinity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결혼한 게이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면서 뒤로는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sup>101)</sup> 이런 식으로 서로 양해가 되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 동성애자의 경우 혼외 정사는 정상으로 이해하며, 일부일처 관계를 고집하는 것은 억압이라 본다.<sup>102)</sup> 이런 문란한 분위기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는 위험한 사태가 된다. 그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 하다.

## ⑥ 동성 커플에서 파트너에 대한 학대, 폭력, 등의 빈도가 높다.

동성간 결합에서 파트너에 대한 학대, 폭력, 등의 빈도가 높다고 한다.<sup>103)</sup> 게이들 간의 가정내

97) Gudel JP. Homosexuality Facts and Fiction. The Christian Research Institute. 2009. Article ID: DH055-1 <http://www.equip.org/article/homosexuality-facts-and-fiction/>

98) USA Today 11/21/84.

99) McKusick L. et al. AIDS and sexual behaviors reported by gay men in San Francisco,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5;75:493- 96.

100) Rodriguez-Pichardo A. et al.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homosexual males in Seville, Spain, Geniourin Medicina, 1990;66:423-427.

101) Aaron W. Straight. New York: Bantam Books, 1972. P. 208.

102) Wiederman MW. Extramarital Sex: Prevalence and Correlates i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1997;34:170.

103) Houston E, McKimman DJ.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Gay and Bisexual Men: Risk Correlates and Health Outcomes. J Urban Health 2007;84:681-690.

Finneran C, Stephenson R.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 Systematic

폭력은 이성애자들 간의 폭력보다 2배 이상인데<sup>104)</sup>, 더구나 일단 동성 커플을 이루면 파트너에 대한 학대, 폭력, 등의 빈도가 더 높아진다고 한다.<sup>105)</sup>

한 연구는 지난 1년 동안 레스비언들의 90%가 파트너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61%에서 신체폭력을 당한다고 하였다.<sup>106)</sup>

그런 폭력은 71%에서 시간이 갈수록 악화한다고 한다.<sup>107)</sup> 남자는 여자보다 폭력적 행동을 하는 수가 많다. 레스비언 커플에서는 상대방에 의한 폭력은, 남성파트너에 의한 폭력보다 적을 것으로 짐작되나, 실제 연구는 여성 파트너에 대한 여성에 의한 학대의 빈도는 25%로서 남성 파트너의 학대의 빈도 27%와 비슷하다.<sup>108)</sup>

한 2006년 연구는, 남녀 동성애자 및 이성애들을 모두 비교한 드문 연구로서,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 지난 한달 동안 파트너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가 동성애자들의 4.4%, 이성애자의 2.9% 였고, 가정내 폭력의 평생유병률은 동성애자에서 55%, 이성애자에서 36% 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09)</sup>

따라서 동성애 커플 관계가 이성애 커플 관계 처럼 안정적이라는 신화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주장은 근거 없다.

## VIII. 동성 결혼에서의 자녀 양육 문제

---

Review. *Trauma Violence Abuse* 2013;14(2):168-185.

104) Island D, Letellier P. *Men Who Beat the Men Who Love Them: Battered Gay Men and Domestic Violence*. New York: Haworth Press, 1991. p.14.

105) US Census. *Married-Couple and Unmarried Partner Households: 2000*, 10. U.S. Department of Justice 2000.

Houston E, McKiman DJ.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Gay and Bisexual Men: Risk Correlates and Health Outcomes*. *J Urban Health* 2007;84:681-690.

Finneran C, Stephenson R.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Abuse* 2013;14(2):168-185.

106) Lockhart L et al. *Letting Out the Secret: Violence in Lesbian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94;9(4):469-492.

107) Nichols WC et al.(ed). *Handbook of Family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2000. p.393.

108) Brand PA, Kidd AH. *Frequency of physical aggression in heterosexual and female homosexual dyads*," *Psychological Reports* 59, pp. 1307-1313; cited in James E. Phelan, Neil Whitehead, Philip M. Sutton, "What Research Shows: NARTH's Response to the APA Claims on Homosexuality," *Journal of Human Sexuality* Vol. 1, p. 85

109) Cochran BN, Cauce AM. *Characteristic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ndividuals entering substance abuse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2006;30(2):135-146.

동성혼이 문제되는 것은 더욱 핵심적으로 자녀 양육 문제이다. 가족의 역할 중 하나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다. 동성커플도 자녀를 두고자 한다. 그들은 각자 자녀를 데리고 동거하거나 양자로 데려와 양육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그런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가 하는 것이다. 역시 동성애 옹호자와 반대자 양쪽 주장이 엇갈린다.

## 1. 옹호하는 연구와 그 비판

초기에 옹호자편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동성 커플 아래 자란 아이들이 양성 부모 아래 자란 아이에 비해 학교 성적이나 인품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나아가 동성애 옹호자들을 동성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sup>110)</sup> 오히려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이성부모들 아래에서 보다 더 잘 자란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였다.<sup>111)</sup>

대규모 연구로서 2005년 소아의 건강과 복지, 양자 등에 대한 여러 미국의 기구들<sup>112)</sup>이 결혼, civil union, domestic partnership statutes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the Amendment) 등등 동성 커플(same-gender couple)이 양육하는 어린이들의 법적, 경제적 정신사회적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보고서<sup>113)</sup>의 결론은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이성커플의 자녀들만큼 잘 자라거나 오히려 더 잘 자란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레스비언이나 게이 양친에 의해

---

110) Cline A. Common Arguments Against Gay Marriage.  
<https://www.thoughtco.com/moral-and-religious-arguments-250095>

111) Pawelski JG, et al. The Effects of Marriage, Civil Union, and Domestic Partnership Law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Pediatrics* 2006;118:349-365.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18/1/349.full>

Crouch SR, et al. Parent-reported measures of child health and wellbeing in same-sex parent families: a cross-sectional survey. *BMC Public Health* 2014;14:635.

<https://doi.org/10.1186/1471-2458-14-635>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Same-sex Parents and Their Children. 16 June 2019.

112)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Board of Directors commissioned the Committee on Psychosocial Aspects of Child and Family Health, the Committee on Early Childhood, Adoption, and Dependent Care, the Committee on Adolescence, the Committee on State Government Affairs, the Committee on Federal Government Affairs, and the Section on Adoption and Foster Care

113) Pawelski LG, et al. The Effects of Marriage, Civil Union, and Domestic Partnership Law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Pediatrics* 2006;118:349-365.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18/1/349.full>

Crouch SR, et al., Parent-reported measures of child health and wellbeing in same-sex parent families: a cross-sectional survey. *BMC Public Health* 2014;14:635.

<https://doi.org/10.1186/1471-2458-14-635>

양육받는다든 것은 소아에게 이점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14)</sup>

### 옹호 연구에 대한 비판

그러나 곧이어 이런 연구들에 연구방법상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즉 통제집단이 없고 대상은 무작위적 표집이 아니었고, 대상의 수도 적었다. 차별과 혐오와 자식을 뺏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 동성 커플들은 백인이었고, 도시의 중산층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그런 연구들은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sup>115)</sup> 그 이유로는 동성 커플들이 자기들의 동성혼을 지지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자녀들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하며, 동성커플의 가족의 부정적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에 관련된 편견, 즉 social desirability bias를 거짓 보고하며 따라서 그런 식으로 동성커플의 가족이라는 self-presentation bias가 작동하게 됨으로 그런 연구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심리학회가 동성 커플이래서 양육된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이성애자 부부의 자녀들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한 바에 대해, 미국 심리학회가 근거자료로 열거한 59개 논문을 조사하고 대상선정의 적위성, 비교집단이 없음, 비교 집단에 대한 기술 불충분, 상호모순된 자료, 어린이들이 자란 후의 상태에 대한 조사 없음, 통계적 검증의 결여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sup>116)</sup>

또한 자녀의 젠더 역할에 대한 심리적 측정도구는 주로 내면보다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밀하지 못하며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런 연구결과들은 일반화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들도 같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는다. 따라서 여전히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 즉 두사람의 엄마, 두사람의 아빠가 아이를 원만하게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 2. 반대하는 연구

동성 부모의 양자의 양육에서는, 아버지 없는 양육, 어머니 없는 양육, 또는 불안정한 동성부모

---

114) Pawelski JG. et al. The Effects of Marriage, Civil Union, and Domestic Partnership Law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Pediatric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6;118 (1).

115) Fitzgerald, B. Children of Lesbian and Gay Par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rriage & Family Review. 1999;29(1):57-75. doi:10.1300/J002v29n01\_05

116) Marks L Same-sex parenting and children's outcome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brief on lesbian and gay parenting. Soc Sci Res 2012;(4):735-51. doi: 10.1016/j.ssresearch.2012.03.006.



간의 관계, 가정내 폭력 등으로 자녀들의 정신성 발달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sup>117)</sup>

① **역사적 지혜의 무시** – 동성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에서 오랜 쌓인 지혜와 증거, 즉 자녀는 결혼한 부모 아래서 자라야 한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다.<sup>118)</sup>

② **부모로서 동성 커플의 관계 불안정성 (고아가 될 위험성)** – 자녀가 성장하는데 부모의 결혼관계의 안정성, 즉 가정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성 커플의 관계적 안정성이 매우 낮다. 즉 동성애자들이 흔히 보이는 성적 불안정성과 문란성, 커플 간 폭력이 잦음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부부불화, 가정내 폭력이 자녀의 정신성 발달 내지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커플의 동거기간이 짧아 부모 역할 기간이 짧다는 것도 자녀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자녀들은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③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 - (아래 비교연구 참조)**

④ **성적 동일시의 문제** – 어린이는 부모 양친으로부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녀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동일시(identification)해 나간다. 이성 부모아래 자란 아이가 남녀 두 역할을 배움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잘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과 동성애자 역할의 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두 역할은 상호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특이한 상황이다.

그런데 게이나 레스비언은 이성애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젠더행동의 모델이 되어주기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게이아버지는 어린 딸을 목욕시키지 못하거나 사춘기나 월경에 대해 토론하지 못한다.<sup>119)</sup> 그 차이는 자녀들의 비정상적 젠더표현으로 나타난다.

친동성애적인 사회학자인 Judith Stacey and Timothy Biblarz<sup>120)</sup>는 이들 핵심적 연구들의 실제 자료를 통해 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대부분 레스비언 양친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조사하여 레스비언 자녀들은 전통적 성의 기준에 일치하지 못하고, 동성애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딸들은 더 흔히 성적으로 모험적이며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 레스비언 양친의 상호관계는 이성애자 결혼보다 더 깨어지기 쉽다고 하였다.

Cameron은 동성 양친의 자녀 77명을 조사한 결과 현재 23명(30%)이 동성애자 였다고 하였

---

117) Byrd AD. Gender Complementarity and Child-rearing: Where Tradition and Science Agree. *Journal of Law and Family Studies* 2004;6(2):213.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2013). Homosexual Parenting: Is It Time For Change? March 2013.

118) Dailey TJ. Homosexual Parenting: Placing children at risk The Family Research Council. 2002.

119) Arlene IL How Queer!—The Development of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in LGBTQ-Headed Families". *Family Process* 2010;49(3):268-290. doi:10.1111/j.1545-5300.2010.01323.x.

120) Stacey J, Biblarz TJ. (How) Does the Sexual Orientation of Parents Matt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01;66:159-183.

다.<sup>121)</sup> 즉 레스비언 커플의 22명의 딸들 중에 12명(55%). 그리고 14명의 아들 중 3명(21%)가 동성애자였다. 게이 커플의 17명의 딸들 중 5명(29%), 18명의 아들 중 3명(17%)이 동성애자였다. 게이커플이나 레스비언 커플의 6명의 아들들에서는 동성애자가 없었다. 최소한 25%가 현재 이성애자였다. 트랜스섹스 양친녀 자녀 10명 중 9명의 딸들 중 1명이 레스비언이었고 1명이 이성애자였으며, 1명이 트랜스섹슈얼이었다. 아들들의 성적 지남은 미상이었다. 결론적으로 동성혼 자녀들이 자라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16-57%로 높다는 것이다. (odds ratios of 1.7 to 12.1) 그중 레스비언 커플의 딸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도 하였다(33% to 57%; odds ratios from 4.5 to 12.1).

Marks Regnerus<sup>122)</sup>는 레스비언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동성간 로맨스관계, 양성애, 무성애(asexuality)에 대해 더 개방적이었고, 특히 레스비언 어머니의 딸들에서 평생동안 한명 이상의 여성 섹스파트너와 4명 이상의 남성 섹스파트너를 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이성부모의 딸들은 0.22명의 여성 섹스파트너와 2.79명의 남성 섹스파트너를 두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레스비언 어머니의 딸들에게서 무성애자(asexual)가 4.1%로 이성부모의 딸들의 0.5%보다 많았다. 게이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전적인 이성애자가 제일 적었고, 반면 이성부모의 자녀들에서 전적인 이성애자가 가장 많았다.

⑤ **동성 커플의 부모로서의 건강문제** - 동성애자들에게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문제, 자살위험, 충동장애, 그리고 약물남용 문제 등등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양육을 맡는다는 것은 정신장애 발병, 적응장애, 행동장애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⑥ **기타 - 스티그마의 표적이 될 가능성** - 동성 커플의 자녀는 친구들로부터 차별, 낙인, 놀림, 성적 남용 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동성부모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도 같은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정적 경험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정신성 발달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동성 부모한테 근친간을 당할 우려 - 동성 부모에게 양자된 자녀는 동성 부모한테 근친간을 당할 우려가 높다고 한다.<sup>123)</sup>

121) Cameron P. Children of homosexuals and transsexuals more apt to be homosexual. J Biosoc Sci . 2006 May;38(3):413-8. doi: 10.1017/S002193200502674X.

122) Regnerus M. Parental same-sex relationships, family instability, and subsequent life outcomes for adult children: Answering critics of the new family structures study with additional analyses. Social Science Research. 2012;41(6):1367-1377. doi:10.1016/j.ssresearch.2012.08.015.

123) Cameron P. Child molestations by homosexual foster parents: Illinois, 1997-2002. Psychol Rep 2005;96(1):227-30. doi: 10.2466/pr0.96.1.227-230.

### 3. 비교 연구

동성혼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이성부모가 동성 커플에서보다 어린이가 자라는데 더 좋은 교육적 내지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sup>124)</sup>, 그래서 자녀의 학교성적도 더 좋고<sup>125)</sup>,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다는 증거를 제시한다.<sup>126)</sup>

2010년 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NHIS)<sup>127)</sup>는 1997-2013년 20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 중 동성 부모가 키우는 512명의 자녀들은 이성 부모가 키우는 자녀들보다 감정 문제(17% 대 7%), 발달문제, ADHD(15.5% 대 7.1%), 학습장애(14.1% 대 8%), 정신과 치료 등이 거의 두배로 많았다고 하였다.

2012년 The New Family Structure Study(NFSS)에서 Marks<sup>128)</sup>와 Regnerus<sup>129)</sup>는 일련의 NFSS를 기획하여 그 결과들을 출판하고 있다. 연구 방법에서,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무작위적으로 2,988명이라는 연구대상을 모집하였고, 대상의 과거 가족과 양육 경험에 대해 8개 가족형태로 구분하여, 현재의 상태 40여개 항목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과거 가족 형태는 ① 양친이 살아있고 직접 낳고 양육한 이성혼 부모, ② 부모가 이혼한 경우, ③ 계부모, ④ 한부모, ⑤ 양부모, ⑥ 레스비언 어머니, ⑦ 게이 아버지, ⑧ 기타 형태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동성 커플의 자녀들이 이성부모 자녀들 보다 상태가 나빴다. 즉 비교한 40개 항목 중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정절성, 성병, 성폭력의 피해, 학력, 가정내 안전성, 우울증, 애착과 의존의 수준, 마리화나 사용, 흡연횟수, 범죄행동, 자살 사고, 인간관계에서의 질, 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나이, 성, 인종, 양친의 학력, 경제적 부, 그리고 특히 괴롭힘을 받았는지의 여부, 그들의 상태가 게이 친화적(gay-friendly)인가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그러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동성애자 가정의 자녀들에서 학력이 낮았고,

---

124) Sarantakos S. "Children in Three Contexts: Family, Edu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Children Australia* 1996;21:23-31.

125) Potter D. Same-Sex Parent Families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12;74:556-571.

126) Allen D. High school graduation rates among children of same sex-households. *Rev Econ Households*. 2013.

127) Schumm W. Comparative Relationship Stability of Lesbian Mother and Heterosexual Mother Families: A Review of Evidenc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010;46:499-509.

128) Regnerus M. Parental same-sex relationships, family instability, and subsequent life outcomes for adult children: Answering critics of the new family structures study with additional analyses. *Social Science Research*. 2012;41(6):1367-1377. doi:10.1016/j.ssresearch.2012.08.015.

129) Regnerus M. How different are the adult children of parents who have same-sex relationships? Findings from the New Family Structures Study." *Social Science Research* 2012;41(4):752-770. doi:10.1016/j.ssresearch.2012.03.009.

사회적 도움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공공지원으로 자라는 수가 많았다), 풀타임 직업을 갖는 수가 적었고, 2008년 선거에 투표율이 낮았다. 그중에서도 레스비언 어머니의 자녀들의 상태가 게이 아버지의 자녀들 보다 더 나빴다.

가정에서 양육받은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레스비언 어머니의 자녀들이 가장 낮은 안전성을 경험했다고(즉 위험하였다고) 보고했고 그 다음이 게이 아버지의 자녀들에서 낮았고, 이성부모를 둔 자녀에서 가장 높은 안전성을 보고했다. 즉 레스비언 어머니의 자녀 23%가 모침들에 의해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성부모에 의해서는 2%만이 보고) 게이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양성부모를 둔 자녀보다 성병이 3배 많았고 레스비언 어머니를 둔 자녀에서는 2배 많았다. 최근 치료경험에 대해서는 불안, 우울증, 관계문제 등에서 어떤 형태든 양자로 간 경우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게이 아버지의 자녀, 레스비언어머니의 자녀, 순으로 높았고 이성부모의 자녀들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CES-D depression index으로 평가된 우울증에서 동성 양친 자녀들이 이성부모 자녀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지난 1년간 느낀 자살 사고에서 게이 아버지의 자녀들에서 레스비언 어머니의 자녀보다 가 2배로 많았고 이성혼 자녀보다 무려 5배 높았다. 대인관계의 질에서 게이아버지의(2010; 자녀들이 가장 낮게 평가했고 다음이 낯선이에게 입양되었을 때, 계부모의 자녀들, 레스비언 어머니의 자녀들 순으로 높았고, 이성양친의 자녀에서 가장 높았다. 정절성에 있어 레스비언 어머니의 자녀들이 이성부모 자녀들 보다 불륜경험의 보고가 3배 많았고 게이아버지의 자녀는 2배 많았다. (성적 지남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들은 자녀들이 성장한 가정의 양친이 동성애자인가 생물학적 부모로서 이성애자인가에 따라, 성장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내는 사회적, 감정적 및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에 차이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레스비언 어머니의 자녀들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나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소위 차이 없다는 주장, 즉 “no differences” claim은 맞지 않으며, 새로운 차이에 대한 지식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이 결과들은 편리한대로 대상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무대규모의 무작위적 표집으로 모은 대상에 대한 직접 인터뷰한 조사결과로서 신뢰성이 높다. 특히 대조군으로 이혼이나 사별이 없는 또는 양부모가 아닌 intact한 이성부모가 직접 양육한 자녀들과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옥스퍼드 대학과 루뱅 대학 교수들의 팀이 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발표한 연구가 주목된다.<sup>130)</sup> 전국 규모 인구연구(population study)이다. 연구대상은 동성양친 자녀 2,971명으로 이들은 네덜란드에서의 1998-2007년 사이(양자가 아닌) 동성 커플에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하고 양육된 아이들이었다. 연구방법은 초중학교 수행 평가였다. 대조군은

---

130) Deni M, Kristof DW, Sofie C. School Outcomes of Children Raised by Same-Sex Parents: Evidence from Administrative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0;85(5):830-856. doi:10.1177/0003122420957249. S2CID 222002953.

이성애자 부모 자녀 백만명 이었다. 연구결과 동성양친에게서 태어나고 양육된 아이들의 성적이 높았다. 그 요인으로 저자들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들었다. 그들은 전형적인 이성애 부모들 보다 인공수정을 할 만큼 더 부자고 교육받고 나이든 부모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하면 긍정적 결과는 줄어들었다. 아마도 사회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보상하려는 심리적 메카니즘으로 동성커플로 하여금 자녀 교육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교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이 더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의 능력에서 학교 성적 이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어떤 인격,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동성 양친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들의 양친이 동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점차 적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활, 직업, 인격, 사회적 기여 등등을 평가하는 장기적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 IX. 맺는 말

1. 동성애는 동성간 우정이 아니며, 사랑(愛)이라기 보다 동성간 성교행위이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 자체에 의학적 문제, 즉 건강문제가 많다.

2. 사회 전반에 있어 동성애의 이로움은, 오로지 동성애자들끼리 쾌락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서도 동성애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바, 질병을 가져다주고,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며,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도 병을 전파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최종적으로 동성애자의 수명단축이 알려졌다.

동성애자들이 행하는 성행위들이 당사자들에게는 비윤리적이 아닐지 모르나, 분명히 병적이며 지타에 해로움(harm)을 끼침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사회에 동성애가 증진(promotion) 되면 전통적 사회체계, 특히 일부일처제적 가족체계가 위협받을 것이다.

3. 동성 결혼의 의학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성 커플과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에서 오랜 쌓인 지혜와 증거, 즉 자녀는 결혼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서 자라야 한다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한 인격발달과정을 저해한다.

② 동성애자들에게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문제, 자살위험, 충동장애, 그리고 약물남용 문제 등등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들의 양육을 맡는다는 것은 그들의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자녀가 성장하는데 부모의 결혼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동성 커플이 흔히 보이는 성적 불안정성과 문란성, 커플 간 폭력 등은 그것을 목격하는 자녀들의 인격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

④ 이성 부모 아래 자란 아이가 남녀 두 역할을 모두 배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그리고 동성에 파트너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데, 이 역할들은 상호 충돌하기 마련이다. 동성 커플의 자녀가 동성 양친을 동일시(identification) 함으로 동성에 또는 트랜스젠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⑤ 동성 커플의 자녀는 동성 커플한테 성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차별, 낙인, 놀림, 성적 남용 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⑥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진정으로 "책임이 따르는" 결혼관계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는 동성애자들의 결혼 신고율이나 civil union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

결론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들을 낳고 길러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다.

4. 학자들은 열심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사회적 경향에 따라 동성에 정상화와 동성혼 합법화, LGBT 성교육 등에 대해 지지하는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를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성애에 관련된 의학적 문제들을 검토해보는다면 여전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즉 동성애 라이프스타일은 자신과 결혼 파트너는 물론 전체 사회에 대해 최소한 건강면에서 해롭다. 동성애나 동성 결혼은 생명현상을 훼손하고 있다.

5. 이러한 부정적 측면 때문에 동성애 혐오가 지속되어 왔고,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문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동성애자 인권문제는 발전시킬 필요는 있지만, 동성애를 억제하면 하였고, 정상화하거나 증진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는 동성애를 멋진 라이프스타일로 포장하고 있고, 학교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동되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등 모든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실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동성간 성행위의 실행은, 비록 결혼이라는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친다는 증거들이 많다. 현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혐오라고 하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인권보호나 차별의 문제는 "법적 강제"가 아닌 다른 인격적이고 교양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 끝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나아가 모든 LGBTQ 관련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치유하는 연구소가 설립되기를 희망한다.